이해리 기자의 칸 리포트 | 꿈이야 생시야…'기생충' 황금종려상 수상 순간

마지막 시상서 "패러사이트, 봉준호" 감동 백배

〈기생충(Parasite)〉

폐막일 봉준호·송강호 참석 요청 기대감
8개 부문 맨 마지막 극적인 수상에 환호
봉준호 감독 "독특한 영화 만들고 싶었다"
감독 위주 심사위원단도 유리하게 작용

영화제는 올림픽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할 만큼 긴장은 고조됐다. 본상 8개 부문 가운데 마지막 황금종려상 시상만 남겨둔 그때, 프레스센터에서 중계화면으로 시상식을 지켜보던 각국 취재진 사이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패러사이트'(기생충·Parasite) 봉준호!"를 외치자 숨죽임 끝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칸이 선택한 최고 영예의 주인공,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수상의 영광을 향한 취재진의 '예우의 함성'은 국적을 불문했다.

●12시41분 '참석해 달라' 연락 당도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의 주연 송강호는 22일(이하 한국시간) 영화 공식 상영 이후 이튿날까지 해외 150여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폐막까지 있겠다"고 일찌감치 알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상 기대' 정도의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폐막 당일인 25일 현지시간으로 낮 12시41분(한국시간 오후 7시41분)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기생충' 측에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의 폐막식 참석"을 요청하면서 기대감은 현실이 되어갔다.

칸 집행위원회는 대체로 폐막 당일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수상자들에 한해 '참석 메시지'를 띄운다. 이는 곧 수상 확정을 뜻한다. 취재진 역시 오전부터 '참석 통보' 여부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면서 소식을 기다렸다. 송강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상 직후 취재진과 만나 "낮 12시를 지나 40분간 연락을 기다리는데 정말 피를 말렸다"고 돌이켰다. '기생충'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다만 폐막식 시작 전까지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칸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취재진에 정중히 전달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기생충'이 과연 어떤 상을 받을지 숱한 예측이 오갔다. 칸에서 만난 한국영화 관계자는 "봉 감독과 송강호까지 참석해 달라는 걸 보니 특정 부문상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고, 결국 예상은 적중했다. 취재진도 분주해졌다. 폐막식 시작 4시간 전부터 영화제 메인 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 3층의 프레스센터에 모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황금종려상만 남았어!" 긴장감 폭발

칸 국제영화제의 시상 부문은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포함해 8개. 심사위원대상 수상작 등 7개 부문의 시상이 끝난 직후 국내 취재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새벽 시간 국내에서 생중계로 시상식을 지켜보던 한국영화 관계자들까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분위기를 묻는 연락을 취해왔다. '진짜 황금종려상이냐'는 놀라움의 물음이었다.

마침내 자신과 '기생충'의 제목이 호명된 뒤 불끈 쥔 주먹을 번쩍 들어 흔들며 무대에 오른 봉 감독은 곧장 뒤돌아 객석에 앉아있던 송강호와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를 향해 '올라오라'며 손짓했다. 긴장 속에서도 그는 명쾌했고 여유 넘쳤다.

그는 "프랑스어 연설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프랑스 영화감독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영화는 큰 모험이었다.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한국어로 소감을 밝혔다. 그의 소개를 받은 송강호는 숨을 한 차례 가다듬고 "인내심과 슬기로움, 열정을 가르쳐준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배우들께 영광을 바친다"고 인사했다.

다시 마이크 앞에 선 봉준호 감독이 "제 가족이 여기 있는데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송강호와 곽 대표가 2층 객석을 나란히 가리켰다. 그러자 중계 카메라가 가족의 모습을 화면에 비추기도 했다. 폐막식에 참석한 각국 영화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환호와 박수로 수상을 축하했다.

칸(프랑스) | gofl1024@donga.com

봉준호·송강호 말로 본 '기생충' 단서들

영화 '기생충'은 가난한 집과 부잣집 사이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라는 큰 얼개와 관련 설정 외에는 어떤 내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은 현지 첫 공개 조건을 달아 작품을 초청한다. 봉준호 감독은 국내외 취재진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작 당시에도 구체적인 스토리가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왔다. 봉 감독과 송강호 등 출연진이 칸에서 내놓은 언급이 그 내용을 유추할 만한 단서가 되고 있다.

●"90%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 중 60%가 2층 구조의 부잣집에서 일어난다."

영화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젊은 사업가의 집에 고액과외 교사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봉준호 감독은 "계단이 자주 등장한다"면서 빈부와 계급의 문제를 계단에 비유했음을 시사했다.

●"영어나 불어로 번역할 단어가 딱히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공간, '반지하'."

가난한 이들이 살아가는, 한국의 주택구조에서 흔한 반지하라는 공간을 통해 한국적 스토리의 색채를 강조한 듯 보인다.

●"계층 이슈인 듯하지만 인간 자존감 붕괴의 이야기다."

송강호의 말. 빈부격차와 양극화라는 커다란 화두 안에서 없는 자, 갖지 못한 자 혹은 있는 자, 가진 자들 모두 사회적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봉 감독도 "가난한 가족도 적당히 뻔뻔하고, 부잣집 가족도 누구를 해코지하는 '악의 왕국' 사람들이 아니다"며 "특별한 악당이나 악인이 없음에도 그 정도(결말) 상황으로 치닫는 것에서 (관객이)받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패러사이트!(Parasite)"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눈을 가린 독특한 포스터, 최우식·박소담, 조여정, 송강호·장혜진(왼쪽사진부터) 등 주역들의 열연이 심사위원단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30일 국내 개봉…이젠 흥행과의 전쟁

'기생충' 칸의 열풍을 한국으로

투자배급사 CJ엔터 대박 겨냥 스크린 확보 총력전
봉준호·출연 배우들 '관객과의 만남' 무대 총출동

'기생충'은 "위대한 배우들"인 이선균, 최우식, 조여정, 박소담, 장혜진, 이정은 등이 또 다른 주역으로 활약한 무대다. 이들은 레드카펫과 상영 등 이번 칸 국제영화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귀국했지만 26일 '환희의 순간'을 현지에서처럼 생생하게 맞이했다. 이에 뜨거웠던 현장의 분위기를 국내로 그대로 옮겨와 축제를 이어간다.

이들은 이번 수상에 따라 영화에 대한 관심의 시선이 쏠리면서 개봉일인 30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개봉 첫 주말인 6월1일과 2일 서울에서 극장을 찾아 무대인사에 나선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를 비롯해 이들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관객과 소통하며 수상의 기쁨을 전할 예정이다. 또 관객을 위한 깜짝선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만큼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이들이 영화에서 보여줄 또 다른 앙상블에 대한 기대치가 치솟으며 이들의 차기작 등 향후 행보에 시선이 향한다. 이선균은 새 영화 '킹 메이커'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설 준비에 돌입한다. 최우식은 여행으로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조여정은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을 통해 시청자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정은 역시 밀려드는 차기작을 두고 선택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선과 관심은 이제 '기생충'의 국내 흥행 여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개봉을 앞두고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다수의 스크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배급 경쟁에 나선다. CJ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 등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등 출연진에 대한 관객 신뢰에 이번 수상 프리미엄으로 흥행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영화제와 함께 문을 연 칸 필름마켓에서 전 세계 150개국에 선 판매되며 고무적인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 것 역시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만큼 대중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봉준호·송강호, 함께라서 아름답다

네번째 동행서 '황금종려상' 대형사고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제 동반자"
봉 감독, 송강호에 수상 멘트 청해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제 동반자인 우리 송강호님의 멘트를 꼭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

봉준호 감독은 이번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옆에 선 배우 송강호를 이렇게 소개했다. 송강호에 대한 그의 신뢰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 드러난다.

영화 '기생충'은 이들의 네 번째 무대. 공권력이 외면한 시민의 목숨(살인의 추억, 2003년), 미군이 불법 폐기한 화학약품에 의해 자라난 괴물과 그에 맞서는 가족(괴물, 2006년), '머리칸'과 '꼬리칸'의 불평등을 안고 내달리는 순환열차(설국열차, 2013년)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함을 드러내온 두 사람은 이번엔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풍자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명실상부한 한국영화의 대표적인 감독과 배우. 스포츠동아가 올해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100인의 영화전문가를 대상으로 2월 벌인 '역대 최고의 작품·감독·배우' 설문에서도 입증됐다. '살인의 추억'이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송강호가 '최고의 남자배우'(여배우는 전도연)로 각각 꼽혔다. 봉 감독은 임권택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괴물'과 '설국열차'도 '최고의 작품'에 언급됐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세계 영화계의 최고 봉우리에 우뚝 섰다.

봉준호 감독은 연세대 사회학과와 199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1기 출신이다. 졸업 작품인 단편영화 '지리멸렬'로 충무로의 주목을 받은 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장편 데뷔했다. 비록 흥행에 실패했지만 독특한 시선과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 기법 등을 인정받으며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현장에 섰다.

그는 소설 '천변풍경' '구보씨의 일일'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 박태원의 외손자, 1세대 그래픽디자이너이자 화가인 고 봉상균 선생의 아들, 패션디자이너 봉지희 연성대 교수의 동생 등 예술적 향취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화실을 놀이터 삼았다는 그는 소품 하나하나에까지 의미와 사실감을 부여하는 세밀한 연출로 '봉테일'이라 불리고 있다. 작품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시선으로 현실 발언을 대신해온 그는 이제 또 다른 무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14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를 꿈꾸기 시작한 송강호는 무명의 연극배우로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극단 연우무대 등을 통해 쌓은 재능은 1997년 영화 '넘버3'와 이듬해 '초록물고기'를 통해 스크린에 드러났다. 이후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넘나든 그는 "어떤 스타일이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이야기나 인물이 관객에 적확하게 다가가도록" 연기를 펼쳐 왔다.

그런 생각으로 칸에서도 인정받았다.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전도연, 여우주연상), 2010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심사위원상) 등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늘 성과를 내온 그는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에게 영광을 안겨주며 힘을 보탰다. 칸(프랑스) | 이해리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녹색자금 조성 지원 동행복권

복권기금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숲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Lotto 6/45 860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5월25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4	8	18	25	27	32	42

1등 총 당첨금 18,798,998,25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0	1,879,899,82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62	50,534,94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39	1,339,533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28,867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882,931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